

아르헨티나 대외채무 상환중단선언과 향후 전망

12월 23일자로 내년 3월 차기 대통령 선출시까지 임시대통령으로 임명된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 대통령은 취임 당일,

- ① 당분간 현행 고정환율제 유지,
- ②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지원 등 경제회생 주력,
- ③ 아르헨티나의 대외부채 상환중단 등을 선언하였음.

1. 대외채무 상환중단 선언의 내용

- ☐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번 대외채무 상환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환중단의 대상이 되는 대외채무의 규모 및 다국적 채권단이 공여한 여신도 포함되는지 유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미루고 있음. 그러나 그 규모는 러시아가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당시의 4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 아르헨티나의 금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공공채무의 규모는 1,320억 달러 규모이며 이중 950억 달러정도가 채권으로 발행된 것임.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자신들의 채권중 420억 달러 정도를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새로운 여신으로 전환한 바 있음.
- ☐ 사아 임시대통령은 금번 대외채무 중단선언과 관련하여 외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 잠시 상환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사아 임시대통령은 금번 위기타개를 위해 아래 조치를 발표하였음.

- 국내소비에 있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 통화인 페소화와 달러화 이외의 '**제3의 통화**'에 대한 구상
-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현재 10명인 각료를 내무장관, 외무장관, 노동장관 등만 남기고 모두 폐지
- 대통령전용기 및 관용차 매각
- 공무원 휴가중지
- 대통령을 포함한 전공무원 봉급 삭감·동결
- 폭동피해상가 보상
- 델라루아 대통령이 1,000달러로 제한한 월간 예금인출한도의 완화

2. 향후 전망

- ☐ 상당수의 국제 채권투자기관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위험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금번 아르헨티나의 외채 상환중단 선언이 신흥시장의 연쇄붕괴를 몰고 온 지난 1997~1998년 당시와 같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아르헨티나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통화발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이의 통제가능여부와 초인플레이의 재발 가능성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페소화 대 미달러 1:1 환율은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폭의 평가절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향후 예상되는 채무 재조정시 투자자의 손실규모는 약 45% 정도로 예상되고, 신규 채권발행금리는 가장 최근 발행한 채권금리의 1/5 수준인 3%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IMF는 사아 대통령의 신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긴축정책 추진을 요구하였음.

- ☐ 향후 사태의 조기수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협상을 얼마나 빨리 전개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와의 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금변 사태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 2001년 10월말 현재 아르헨티나 앞 해외투자현황 : 37건, 112,120천 달러
 - o 2001년 10월말 현재 아르헨티나에 대한 교역규모 :
 - 수출 : 281,612천 달러
 - 수입 : 318,972천 달러